■ 전국 명문고 우뚝 선 광양제철고

학생이 직접 선택 수준별 이동수업

포스코 지원 자사고…수업료 일반계고 수준

올 서울대 5명 등 서울소재 대학 205명 합격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등학교가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합격생을 대거 배출하는 등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거듭나고 있다.

광양제철고는 올해 서울대 5명을 비롯한 연·고대 50명, 이화여대 6명, 서울교대 7명, 서강대 4명, 성균관대 12명 등 서울지역 대학에 205명을 합격시켰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립대 2명, 북경과학기술대 1명 등 3명이 해외 명문대로 진학했으며, 의·치·한의대 22명, 카이스트·경찰대·사관학교에 각 1명씩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광양제철고에서 대입을 치른 전체 385명의 60.5%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교육시스템은 학생이 중심=광양제철고의 모든 교육시스템은 학생 중심이다. 타 고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수준별 선택형 이동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 선택형 방과후 학습 등이다.

수준별 선택형 이동수업은 영어와 수학 과목에 한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실력에 맞춰 상, 중, 하반에서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다.

선택형 방과후 학습은 대학수업을 접목했다. 매일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교사들이 개인별로 개설한 수업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수업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지루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만큼 수업준비도 그만큼 철저하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은 광양제철고만의 자랑이다. 학생들은 수업 이후 밤 11시까지 1천200석의 도서관에서 개인 지정석에 앉아 스스로 공부를 한다. 도서관의 좌석수가 전교생의 숫자만큼 설치된 곳은 전국 고교 중 광양제철고가 유일하다.

◇수업료는 일반계고, 실력은 자사고=광양제철고는 자사고지만, 수업료는 연 120만원으로 일반계고와 똑같다. 타지역 자사고들이 연간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기숙사비 포함)까지의 수업료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수준이다.

이는 광양제철고를 적극 지원하는 포스코교육재단 덕분이다.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학교 운영비 중 대부분을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대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 도시에 최신 시설과 우수 교사진을 갖춘 학교를 설립해 후원하고 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광양제철고는 2011년부터 기존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실력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광양제철고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없던 면접제가 도입된다. 지원동기와 학습·진로계획,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4부분에 걸쳐 꼼꼼한 면접이 이뤄진다. 1단계 전형에서 5과목 내신성적(300점)을, 2단계에선 1단계 점수와 면접(40점)을 합산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이상진 광양제철고 교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이 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학교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제철고 학생들이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시험에 참여해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광양제철고 제공〉

놀고 즐기는 이벤트성 MT는 가라

요리경연·공사현장 체험·컴퓨터 보수 등

호남대 전공 특화·사회봉사 '실속형' 확대

바닷가에서 조개 등 해산물을 직접 잡아 펼치는 즉석 요리경연(조리영양학부),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한 공사현장 체험(토목환경공학과), 외국인 근로자와 새터민을 위한 컴퓨터교육과 유지·보수 봉사(인터넷소프트학과)….

호남대학교(총장 장병완)가 예전의 놀고 즐기는 이벤트성 신입생 환영회를 탈피해 사회봉사와 전공학습을 접목한 실속형 MT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호남대는 11일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전공별 특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전공특화·사회봉사형' 신입생 환영회(MT)를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리영양학부(학부장 길진모)는 오는 31일부터 2박3일간 부안 변산에서 실시되는 MT에서 학생들이 직접 바다에서 채취한 조개 등 해산물로 즉석요리를 만드는 한식요리경연대회를 갖는다. 특히 노인들을 초청한 시식행사도 곁들일 뿐만 아니라 신입생·재학생 등 240여명이 바다쓰레기 수거 봉사활동도 전개해 의미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토목환경공학과(학과장 송창수)는 25일부터 26일까지 '미래 직업체험'을 주제로 광양의 '이순신대교' 건설현장과 장흥~광양간 고속도로 11공구 터널 시공현장을 찾아 현수교 설계와 시공, 터널 현장에서의 시굴과 엔지니어의 역할 등에 대한 체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섬진강환경지킴이와 함께 섬진강 수질 오염조사 등 섬진강 환경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인터넷소프트웨어학과(학과장 김남호)는 25일부터 1박2일 동안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새날학교를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새터민 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윈도우, 인터넷 활용법 등 컴퓨터 교육과 함께 컴퓨터 유지·보수 활동을 한다. 또 학생들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는 봉사활동도 전개한다.

이 밖에도 한약재산업학과, 간호학과, 경영학과 등 호남대학교의 35개의 학과(부) 대부분이 전공분야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신입생 환영회를 계획하고 있다.

호남대 복한모 학생처장은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환영 행사를 전공과 연계한 특화된 실습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들 역시 앞으로 배우게 될 학문분야를 미리 섭렵하는 선행 현장학습 효과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 학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미취업 대졸자 맞춤형 직업교육

광주대 '교육훈련 지원 사업' 대학 선정

광주대(총장 김혁종)가 광주·전남 지역의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 취업 및 창업 알선에 나선다.

광주대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미취업 대졸생 대학 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 시행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대는 국비 2억5천만원, 대응투자 7천만원 등 총 3억2천만원을 들여 6월말까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6~2010년 미취업 대졸자 및 오는 8월 졸업예정자로, 교육비 및 교재는 무료이며 식대 및 교통비도 지원된다.

교육 훈련 교육의 주안점을 국가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전문성 향상에 두고 취업준비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재학생 10명 해외인턴십

캐나다서 4개월간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어린이영어교육학과가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실시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이번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 위치한 아나폴리스 밸리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지 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면서 업무경험을 쌓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전공심화 및 국제 리더십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영어전용 도서관서 생생한 현장 학습

광주 보문고 '영어교육리더학교' 선정

광주 보문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교육리더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리더학교 선정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예선을 거친 134개교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대학교수와 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중앙심사단에 의해 100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보문고는 지난해 영어전용교실과 미국 현지 교사와의 원격화상 시스템, 영어전용 도서관 등을 구축해 영어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영어전용교실에는 공항검색대와 안내 데스크, 상황극 실사 스크린 등을 설치해 현장 영어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영어전용도서관에는 영어도서 및 학습CD 등 1천80점의 학습 자료를 배치했다.

또한 정규수업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상시 배치하는 한편 원어민과 함께하는 'Free Talking Club'을 운영, 학생들에게 매주 3차례씩 영어토론의 장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감을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얻어냈다.

보문고는 매년 2차례씩 학부모 대상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성적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전국 연합평가에서 4명에 불과했던 1등급(전국 상위 4%) 학생이 같은 해 11월 평가에선 1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정승로 보문고 교장은 "영어교육의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목고인 외국어고를 뛰어넘는 영어리더학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보문고 등의 영어교육 우수사례를 자료집으로 발간,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오성동 교수 도서학회 회장 선임

오성동 조선대 교수(경상대학 경제학과)가 (사)한국도서(섬)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도서(섬)학회는 한국 전역의 해양과 도서에 관한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을 연구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에 이바지하고 도서주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8년 출범했다.

오교수는 한중경상학회·한국전문경영인학회·한국도서(섬)학회·한국동서경제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 및 투·융자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